

대한건축사협회, CAD 등 공동구매서비스 개시

CAD, BIM, 인터넷, 오피스 등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업무에 필수적이거나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동구매서비스가 개시됐다. 그동안 회원의 건축실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 기술, 제품,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ICT기반의 '건축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 KIRA HUB)'를 구축·운영기 위해 준비해온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이 첫 스타트를 끊고 8월 1일 시스템 베타오픈을 거쳐 8월 15일 구매가 가능한 정식오픈을 했다.

우선 사협은 8월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로 CAD 뿐만 아니라 BIM, 오피스(한컴오피스)를 확정했다. CAD 중 'BricsCAD Pro'는 오토캐드와도 양방향 호환, 안정성을 갖추며 특히 유럽·일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6월 28일 출시된 'ZWCAD 2017'은 안정성과 관련해 ZWCAD관계자에 확인결과 "올 6월 29일 출시된 'ZWCAD 2017'은 사협과의 공동구매서비스를 감안 해 건축분야에는 공급하지 않았고, 기계·제조분야에 300 Copy 정도 공급했는데 안정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고 전했다. 또 'BricsCAD Pro', 'ZWCAD 2017'은 PC설치 때 하드 소용량도 적다. 프로그램 처리속도가 빠르고, 비교적 저 사양 PC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다.

CAD는 'ZWCAD 2017'·'BricsCAD Pro'를, BIM은 9월부터 'SketchUp'·'ArchiCAD 19 Solo & Fullnet'이 구매품목에 포함된다. 특히 CAD, BIM이 하나로 결합된 상품도 선보인다. 8월 서비스되는 'BricsCAD Pro+ArchiCAD 19 Solo Suite'상품이다. 제작사가 서로 다른 SW를 하나로 묶어 판매할 수 있는 것은 1만 회원을 거느린 협회기 때문에 가능한 상품구성이다. 공동구매 속성상 소비자가격보다 회원 공급가격이 저렴하지만, 특별 프로모션 기간을 이용한다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가능하다. 특별프로모션은 8월 15일 오픈일부터 10월 14일까지 두 달 간 진행된다.

3rd Party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BricsCAD는 특별 프로모션 기간 중에 1년 구매 시 2년 사용권을 제공하는 가격이 1년에 36만원(VAT 별도)이다. 3rd Party를 포함한 ZWCAD도 같은 기간 같은 가격으로 1 User 구매 시 2 User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프로모션 기간을 활용하면 1년 동안 한 달에 3만원의 가격으로 정품 CAD를 2년 혹은 2 User 라이선스로 이용할 수 있다. 단, ZWCAD 2017의 경우 엔진만 먼저 공급하고 3rd Party가 9월 중 제공돼 구동이 가능한데, 3rd Party 제공 전 구매자에게는 무상 업데이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모션 기간이 지나면, 가격변동은 없지만 각 제품별로 제공되는 혜택(BricsCAD 1년 구매 시 2년 사용권, ZWCAD 1 User 구매 시 2 User 라이선스 제공)은 받을 수 없다. 또 프로모션기간에만 특별 판매하는 ArchiCAD 19 Solo와 BricsCAD Pro를 결합한 Suite제품은 1년에 660,000(VAT 별도)원으로 이용가능하다. 2개월 한정 프로모션으로 기간이 지나면 세계최초로 진행된 이종 업체간 결합상품 패키지는 판매가 종료된다. 같은 기간 한정 판매하는 '한컴오피스 NEO'는 건축사사무소의 회원 1인당 1 copy 구매 시 50인 미만 한도 내에서 전 직원 라이선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대표건축사 포함 직원 수 20인 사무소의 경우 회원 1인이면 1 copy를 구매하고, 회원 2인이면 2 copy만 구매해서 사용하면 된다. 정품 오피스소프트웨어의 장점은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폰트목록의 경우 CAD 등 다른 소프트웨어에 사용해도 폰트 저작권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한컴 오피스에 내장된 폰트에만 한하기 때문에, 누락된 글꼴 사용 등은 특별한 확인을 요한다.

이외에도 9월 15일부터 판매되는 제품도 있다. 인터넷 회선인 LG U+인터넷, SK Broad band 인터넷이다. BricsCAD와 ZWCAD, ArchiCAD 등 공동구매 제품들이 임대형으로 판매되는 것과 달리, Sketchup은 영구형 패키지로 판매하며, MS 오피스도 9월 15일부터 판매된다.

KIRA-HUB에 접속하는 방법은 주소 직접입력(kirahub.kira.or.kr)과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한 접속 등이 있다. 홈페이지 디자인은 배너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뤄져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배너를

통해 해당화면에 접속할 수 있고, 제품의 상세정보와 제공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는 신용카드결제와 계좌이체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모두 일반 인터넷 결제방법과 동일하다.

KIRA-HUB는 웹사이트와 모바일로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공동구매서비스 결제는 웹에서만 가능하다.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고액이기 때문에 소액결제가 대부분인 모바일 결제시스템과 맞지 않고, 보안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2016 건축사예비시험 최종합격자 771명 발표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교통부가 5월에 실시한 201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7월 8일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등을 통해 발표했다.

6월 10일 발표된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경력심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합격자는 771명이다. 이번 시험에선 총 4,341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률은 17.8%로 지난해 합격률 18.7%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합격자수는 2015년 합격자 739명보다 32명 늘었다.

최근 5년간의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생 추이를 보면, 2012년 5,559명 응시생을 기점으로 2013년 4,364명, 2014년 4,165명, 2015년 3,952명 등 점차적으로 축소되다 올해 4,341명으로 소폭 늘었다. 건축사협회 시험담당자는 “건축사예비시험이 2020년부터는 폐지되기 때문에 실무수련을 할 수 없는 수험생이 건축사예비시험에 지속적으로 응시하고 있어 접수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원서접수 6,147명

201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원서접수가 7월13일 마감됐다. 올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8일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원서접수 프로그램을 통해 총 6,147명이 접수를 완료했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193명이 증가한 결과다. 건축사협회 시험관 리팀은 “2012년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실무수련완료자의 수가 늘어나고 또한 기존 과목합격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들이 지속적으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어 접수자가 소폭 증가했다”며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2026년 건축사자격시험까지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협회는 원서접수 마감 후 시험장소 임차, 응시자 배정 등의 준비업무를 거쳐 시험장소, 시험시행 및 응시자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8월 17일에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참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청년위원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16 서울 진로직업박람회'에 참가하여 건축사 직업 체험관을 운영했다. DDP에서 진행된 '2016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직업체험관 ▷직업세계관 ▷진로설계관 ▷창업창업관 총 4개의 주제관으로 운영하며 초·중·고생 4만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직업체험관은 직접 체험위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는데, 건축사 직업체험관은 트레이싱 페이퍼에 직접 그린 집 그림을 스티로폼으로 만들어 붙이며 성과물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건축사 직업체험관 기획에 참여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청년위원회 한 위원은 "아이들의 '체험'에 방점을 뒀서 직접 계획하고 성과물을 만들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창의력 수준이 높고, 호응도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청년위원회 위원들은 입을 모아 "어릴 때부터 건축에 대한 느낌을 익히게 해주는 건축체험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성인이 돼서 건축에 대한 식견과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건축사에 대한 홍보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건축사 직업체험관에선 이외에도 현장에서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건축사'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북부소방서와 간담회 개최



광주광역시건축사회가 7월 13일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소회의실에서 광주북부소방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관계법령 소개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진로탐색



대전광역시건축사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로 7월 30일에 진행됐고, 8월과 10월 대전시에 소재한 근·현대 건축물을 탐방하게 된다.

청주지역건축사회, 서원구청 건축과 합동 워크숍



청주지역건축사회는 7월 14일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와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 발전과 건축설계·감리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 참여했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으로는 단열기준 강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일조관련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 경관심의 대상 변경, 무허가축사 양성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건축행정 등을 논의했다.

김해지역건축사회, 구산종합복지관에 성금 전달



김해지역건축사회가 7월 28일 오후 2시에 김해지역건축사회 사무국에서 구산종합복지관에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구산종합복지관은 대한건축사협회와 아프리카 희망학교건립 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있는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김해지역 내 초등학교 2, 3학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교실과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